

##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장 명 속  
(경기대학교)

박 경 속\*  
(경기대학교)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과 특별한 사회활동이 없이 집에 있는 재가노인을 합쳐 모두 216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99로 보통정도의 점수를 보였으며, 현재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과거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순으로 낮아졌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 봉사활동 여부, 불교인여부였다.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들이 달랐는데 과거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 요인 중 천주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건강상태, 자택소유여부,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여부와 불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미래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중간체계요인인 봉사활동여부와 불교인여부였다. 이에 따라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조성, 자녀지지를 유지하도록 하고 여가활동 및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주요용어: 생활만족도, 노인, 생태체계적 관점

\* 교신저자: 박경속, 경기대학교(kspark@kyonggi.ac.kr)

■ 투고일: 2012.4.16    ■ 수정일: 2012.6.19    ■ 게재확정일: 2012.6.27

## I.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5,452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은 2010년 80.8세로 길어지면서 노년기가 연장되고 있고, 향후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8,084천명(15.7%), 기대수명은 82.6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11). 100세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사실은 노인에게 축복이자 고민이기도 하다. 노인에게 있어 노년기의 삶은 단순히 수명의 연장뿐만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노년기에 겪게 되는 사회적 역할, 소득, 가족, 친구, 건강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노인들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노인문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와 그러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9)의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전체의 38.2%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2%정도는 만족도가 보통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에 따른 생활만족도가 궁극적으로는 노인 자신의 일생에 관한 행복도 및 생의 목표달성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노년기의 생활만족 여부는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이혜자 외, 2003).

노인의 생활만족과 관련이 있는 이론들은 인간의 노화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이들 이론에는 Cumming과 Henry(1961)의 분리이론, Havighurst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제창되고 Lemon과 그의 동료들(1972)에 의해 공식화된 활동이론(activity theory), Homans(1961)의 교환이론,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 Brief와 그의 동료들(1993)의 상향하향이론(top-down and bottom up theory), Baltes와 Baltes(1990)의 선택적 최적화-보상이론 등이 있다. 이 이론들 중 분리이론이나 활동이론, 교환이론, 최적화-보상이론은 노인들의 활동이나 자원, 심리적

요인 같은 몇 개의 중요한 요인을 강조하는 반면, 상향하향이론과 생태체계이론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환경,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함께 요인으로 봄으로써 개인의 속성과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요인까지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태체계관점은 환경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개인, 미시, 중간, 거시체계로 구분함으로써 환경의 영향력을 좀 더 세분화하여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지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중돈·조주연, 2000; 남기민, 2006; 고영준, 2008; 최송식·박현숙, 2009, 윤현숙·원성원, 2010), 우울, 자이존중감, 죽음불안 등의 심리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동배·손의성, 2005; 이현지·조계화, 2006; 최외선, 2007), 그리고 복잡해진 사회 환경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노인과 노인 주위의 인접한 환경을 중심으로 가정, 지역사회, 사회의 관심, 가치관 등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연구(오현숙, 2003; 손덕순, 2005; 배나래·박충선, 2009; 홍경숙, 2010)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중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주시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활용한 것들이 있지만 이들은 거시체계요인으로 주변생활환경과, 노인에 대한 관심 등(오현숙, 2003), 가족우선주의, 자녀중심주의, 노인차별주의와 같은 문화적 환경을 강조한 것(배나래·박충선, 2009)이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인 기초노령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여부 등 거시적 요인의 영향력을 본 연구는 드물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각 하위체계가 현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고, 과거나 현재, 미래생활만족도를 분리시켜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지는 않고 있다. 생활만족도는 현재에 대한 만족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만족, 미래에 대한 만족을 분리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대한 만족은 자이통합에 중요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만족은 노인들이 앞날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 미시, 중간, 거시체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생활만족도의 하위 구성요소인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 생활만족도에 각기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생태체계의 하위체계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100세 시대를 향하고 있는 긴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복지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의 생활 만족도 개념

생활만족도는 노년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연구개념으로서 모든 노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로 여겨지며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로 간주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다양한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Berg, 2008). 행복한 삶에 대한 만족정도는 생활만족도란 개념 외에 삶의 만족도, 행복감, 노년기의 적응 등의 개념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의 개념 정의 역시 학자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생활만족도의 개념정의를 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생활만족도 개념정의가 객관적 지표 중심에서 주관적 지표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정순돌과 김정원(2010)은 삶의 만족도 개념이 육체적 건강중심의 지표에서 정신적 건강측면,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종교와 영성 등의 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어짐에 따라 개관적 지표 중심에서 주관적 지표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Jan과 Masood(2008)도 생활만족도는 인간의 안녕에 대해 단순한 인간의 삶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나 만족하는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객관적 지표인 건강이나 경제적인 부 같은 것이 항상 더 나은

행복감이나 생활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 만족감을 더 중시한다.

생활만족도를 주관적 만족감의 측면에서 정의할 때 그 다음 문제는 생활만족도가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표준화된 생활만족도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Neugarten 외(1996)의 생활만족도 측정도구에서부터 나타난다. Neugarten 외(1996)는 생활만족도를 열정, 의연함, 달성하고자한 목표와 실제 달성한 목표간의 일치도, 자신에 대한 긍정, 기분 등의 다양한 차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Diener(1984)는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규범적, 주관적, 감정적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규범적 범주는 생활만족도가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가 지니고 있는 이상적인 조건에 대한 특정한 가치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이고, 주관적 범주는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며, 감정적 범주는 현재 경험하는 유쾌한 감정들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만족도를 Neugarten 외(1996)나 윤진(1982)처럼 현재 차원에서 여러 영역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기 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느끼는 생활만족으로 시간적 차원을 더한 정의도 있다. 최성재(1986)는 생활만족도를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여 과거, 현재, 미래생활만족도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만족도는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하는 태도를 갖는 주관성이 강한 개념이며,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차원을 중시하여 생활만족도를 과거, 현재, 미래생활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하는 주관적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같은 심리적변수가 독립변수로 선정되면 열정, 의연함, 달성하고자한 목표와 실제 달성한 목표간의 일치도, 자신에 대한 긍정, 기분 등의 다양한 차원을 기초로 한 생활만족도개념이 자아존중감과 중복되면 영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2. 생태체계적 관점과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심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더 나아가 지역사회, 가치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한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은 이들 중에 활동이론이나 분리이론, 연속이론, 교환이론 등을 근거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또는 경제적 요인 중 몇 개의 요인에 집중하는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권중돈·조주연, 2000; 김동배·손의성, 2005; 이현지·조계화, 2006; 남기민, 2006; 최외선, 2007; 고영준, 2008), 노인과 노인 주위의 인접한 환경을 중심으로 가정, 지역사회, 사회의 관심, 가치관 등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에서 환경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함께 보려고 하는 생태체계적 접근의 연구가 있다(오현숙, 2003; 손덕순, 2005; 배나래·박충선, 2009; 홍경숙, 2010). Brief 외(1993)는 주관적 생활만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는 성격 같은 심리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위로부터의 관점(top-down perspective)과 객관적인 생활환경을 중시하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perspective)이 있다고 하였는데, 결론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요인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거시적인 환경까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보도록 시각을 넓혀주는 접근이 생태체계적 접근이다.

생태체계(Eco-system)라는 개념은 일반체계이론에 생태학적 관점을 결합시킨 것이다. 체계이론에서 체계(system)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 즉 ‘부분들 간에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단위들’로 정의되며, 체계이론은 다양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체계이론에서 이 다양한 체계란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체계들을 포함하며 이들 간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Zastrow & Kirst-Ashman, 2010). Bronfenbrenner(1979)가 인간발달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체계론적 관점을 확대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는 인간발달이 적극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인간과 그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현재 조건들과 조건들 간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개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분을 하고, 나아가 여러 환경들 간의 위계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김형모, 2004). 이후 Germain과 Gitterman이 사회복지실천 생활모형을 제시하면서 생태체계관점을 도입하여 사회복지실천에 자리 잡게 되었다(김동배·이희연, 2003 재인용).

생태학이론의 주요 개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인간의 속성과 관련

된 것으로 인간의 유능성, 관계성, 역할의 개념, 둘째로 환경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의 개념, 마지막으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교류와 관련된 것으로 인간과 환경의 적합성과 적응, 스트레스와 대처의 개념이다(양옥경 외, 2009). 생태학이론은 폭넓은 통합적 실천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이 개인에 대한 환경의 영향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환경 간의 적합성,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적 교환, 그리고 지지 혹은 부정적 생활환경, 즉 억압, 빈곤, 실업,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적 문제의 감소 등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주었다(양옥경 외, 2009). 생태학 이론의 세 가지 개념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데 적용한다면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환경과의 적응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그리고 그 환경과의 교류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체계적 관점을 활용할 때 이러한 요인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과관계 측면에서 보지 않고 이러한 요인들이 구성하는 환경과의 교류를 전환이나 피드백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연구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가설검증 측면에서는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다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할 때 환경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면 전환이나 피드백 같은 과정은 생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는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의 구성요소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인간발달의 생태학에서 생태학적인 환경은 한 가지 구조 안에 하위 구조가 각각 끼어들어가 있는 동심원적 구조로 보며, 이들 하위구조는 미시(micro), 중간(meso), 외적(exo), 거시(macro)체계로 구분된다(Bronfenbrenner, 1979).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개인과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 즉 가족과 같은 직접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역할, 그리고 대면적인 대인관계의 유형과 가정 보육시설, 놀이터 등과 같이 사람들이 쉽게 얼굴을 마주대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중간체계(mesosystem)는 상호작용 중의 여러 미시체계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아동의 경우 가정, 학교와 이웃, 동료 집단 사이의 관계들이며, 성인의 경우는 가족, 직장, 사회생활 사이의 관계이다. 외적 체계(exosystem)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체제로 자녀에게 있어 부모의 직장과 같이 그 개인을 직접 둘러싸고 있지 않은 체계이다. 거시체계(macrosystem)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최상위의 체계로서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 법, 종교, 정책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생태체계적 관점의 맥락에서 보면 노인의 삶은 구조화된 여러 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활만족도 역시 생태학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생태체계관점은 각 체계와 환경, 즉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엇이 노인 자신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가?”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Brief et al., 1993). 그러나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환경의 하위구조 그대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생태학적 환경을 이루는 하위구조에서 외적 체계는 개인을 직접 둘러싸고 있지 않은 체계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라고 보기 어렵고, 또 조작적 정의를 내려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시체계는 개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 같은 체계들을 포함하므로 개인적인 특성을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Campton과 Galaway(1999)는 환경을 네 가지로 영역화하여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개별상황(person in situation)과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제로 구분함으로써 개인적 요인들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상황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 개인이 직접 경험하고 인지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Campton과 Galaway(1999)는 개별상황(person in situation)에서 환경과 접촉하고 있는 개인도 하나의 체계라고 보고 있다. 개인 역시 생물학적 체계, 인지체계, 감정체계 등의 하위체제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라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개인이 경험하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경제적 상황들이 개인체계를 이루면서 그 위에 있는 체계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에게 다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미시체계는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시체계는 가족이나 학교, 직장같이 어떤 특정한 시간동안 개인이 거의 매일 직접적으로 만나는 환경 및 그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어 미시체계의 성격과 기능을 결정하는 환경, 그리고 거



시체계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넓은 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 등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Campton과 Galaway(1999)의 생태체계분류를 활용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로 분류하고자 한다. 개인체계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다. 미시체계는 노인을 둘러싼 노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중간 체계는 미시체계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환경으로 노인들이 여가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집단들과 그 집단에 대한 참여, 집단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간체계와의 관계를 여가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로 보고자 한다. 거시체계는 노인을 둘러싼 최상위 환경으로 노인들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 환경을 의미하며, 특히 노인들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소득보장정책, 장기요양보험정책, 재가복지서비스정책 등을 의미한다.

### 3.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요인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 가. 개인체계요인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들 중에서 개인체계에 속한 변수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기성(2004)은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권중돈과 조주연(2000)은 남성노인이 높다고 하였고, 오현숙(2003)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연령의 경우도 사회적 관계, 신체적 조건, 생활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인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권중돈과 조주연(2000)은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김동배 외(2009)는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노인에게 직업은 안정된 소득의 확보, 사회발전에의 기여감과 건강유지 효과, 사회적 소외와 고독감의 억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권중돈·조주연, 2000).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

구에서 직업을 갖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권중돈·조주연, 2000; 김애련, 2001; 석말숙, 2004; 강현옥·황혜원, 2009; 박순미, 2010; 홍경숙, 2010), 김정엽과 권복순(2007)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노인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에 있어 건강은 생리적인 적응력을 의미하며 노인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에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양호한 건강상태가 역할수행 정도를 높여주므로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권중돈·조주연, 2000; 오현숙, 2003)가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순미, 2010; 정순돌·김정원, 2010).

소득수준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문제, 영양상태, 건강, 사회활동, 여가활동 유지, 품위 유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노인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자립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석말숙, 2004).

교육수준이 높으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책이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유지, 자아개념의 확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교육은 전 생애를 통해 질적인 삶의 결정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오현숙, 2003; 배나래·박충선, 2009; 나동석·김영대, 2011).

주거환경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활환경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혜경(1985)은 노인의 주거환경이 쾌적할수록 노인과 그 가족 내 결속이 더 강해지고, 그 결과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내적 자원인 정신건강의 기초가 되어 삶의 질을 향상 유지시켜주는 기반이다.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Diener & Diener, 1995; 김연희, 2002; 김양순, 2003; 남기민, 2006; 김정엽·권복순, 2007)가 있다. 한정란과 김수현(200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이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와 같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원으로 중요한 성별, 연령, 직업유무, 건강상태, 소득수준, 교육수준, 주택소유여부 같은 주거환경, 자이존중감을 개인체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 나. 미시체계요인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생태체계관점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요인 중 가족원의 지지는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소광섭, 2007; 강현옥·황혜원, 2009) 그런데 가족원의 지지는 자녀지지와 배우자지지로 구분되어 연구되기도 한다.

자녀지지는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도움의 긍정적 자원이다. Shanas(1979)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애정, 의사소통, 부양만족도, 가치관의 일치도 등 부모 자녀관계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의 지지는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주요한 기여를 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권중돈·조주연, 2000; 오현숙, 2003; 석말숙, 2004; 박현순·나동석, 2008; 배나래·박충선, 2009; 홍경숙, 2010).

배우자지지는 배우자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도움의 긍정적 자원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자녀들이 독립한 후 노부부가 함께 지내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배우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중심형이 자녀중심형 보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범·박준식, 2004).

오선영(2008)은 자녀와의 관계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기능이 생활만족도 중 과거생활만족도와 현재 또는 미래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응집성은 과거생활만족도에, 친밀감부족은 현재와 미래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과거, 현재, 미래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친구·이웃지지는 그들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도움으로써 사회관계망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교제 및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필요한 도움을 준다. 친구·이웃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나 친척들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노후에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

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노인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권중돈과 조주연(2000)은 친구관계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소광섭(2007)도 친구의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미시체계요인으로 자녀지지, 배우자지지 및 친구·이웃지지를 선정하였다.

## 다. 중간체계요인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생태체계관점에서 중간체계요인으로 노년기에 적합한 여가활동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관심을 찾아야 하는 현실에서 역할상실로 인한 소외, 고독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게 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오현숙, 2003; 홍경숙, 2010). 그러나 여가활동유형별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남기민(2006)은 여가활동 중에서 소일활동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회문화활동, 자기개발활동, 가족중심활동, 고독무위해소활동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박순미(2010)는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봉사활동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노후생활에서 갖게 되는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유용감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통합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고양근, 1999). 이은주(2005)는 봉사활동이 노년기를 풍요롭게 향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므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종교 활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종교생활은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하고(Ellison, 1991) 우울증과 심리적 디스트레스(Distress)를 저하시키고(Idler, 1987), 사망률과 질병이환율을 감소시키는(Levin, 1996) 등 노후의 심적 건강의 유지 및 삶의 질에 도움을 주는 등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김수정, 2006 재인용), 개인적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기민, 2006, 이현심·

남희수, 2010). 종교 중 기독교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조선호, 2011). 그러나 종교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상당수 된다(장상희, 1983; 김종숙, 1987; 이선미, 1991).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을 중간체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 라. 거시체계요인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문화, 정치, 사회, 법, 종교, 경제, 정책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하는 거시체계(macrosystem)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이념, 가치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노인복지현금급여나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여부 같은 정책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조세로 재정을 충당하는 공적연금제도로써, 보건복지가족부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9)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조사대상 노인 중 46.1%가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받고 있으며, 95.7%가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민경중(2010)은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호전 및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노인돌봄서비스제도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정소연과 김은정(2009)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가족원들의 심리적 불안이 감소하고, 정신건강이 향상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정서적인 안정, 건강과 삶의 자신감이 좋아졌다고 하여 비교적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결과(이동근, 2007; 최숙, 2007; 최은희, 2008)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이나 요양보호서비스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가족간의 관계를 개선하여 노인의 생활만족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이 소득이 높은 노인보다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건강이 나쁜 노인이 건강이 좋은 노인보다 요양보험이나 돌봄서비스로부터의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보장이나 요양보험 같은 거시적 복지정책은 횡단적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것처럼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횡단적 연구에서는 가설의 검증을 양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국가정책인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돌봄서비스제도수혜여부를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거시체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빈곤과 건강, 부양문제이기 때문인데 빈곤을 위한 제도 중에서는 현세대 노인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이어서 기초노령연금을 채택하였고 건강과 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는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제도라서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력은 가설에 대해 양방향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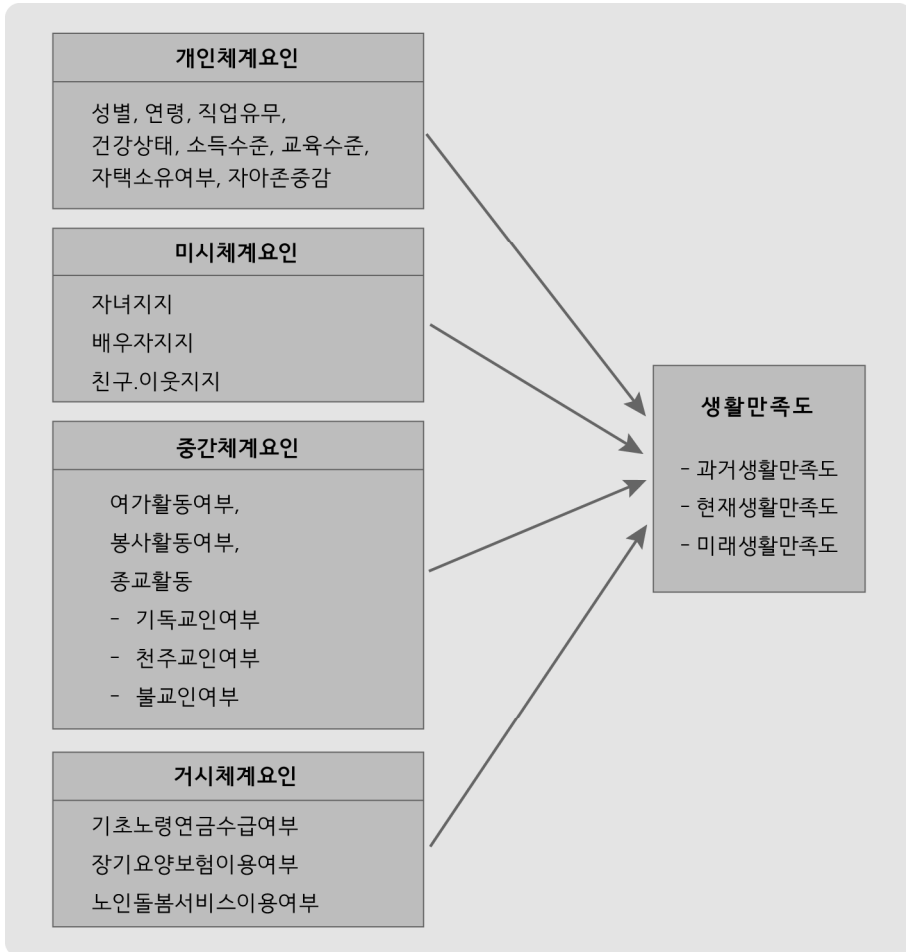
####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개인, 미시, 중간, 거시체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개인, 미시, 중간, 거시체계는 노인의 과거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개인, 미시, 중간, 거시체계는 노인의 현재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개인, 미시, 중간, 거시체계는 노인의 미래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가설을 연구모형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가. 생활만족도

####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과거, 현재, 미래생활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하는 주관적 태도를 의미한다. 최성재(1986)에 의해 개발된 ‘노인생활만족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20개 문항<sup>1)</sup>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생활만족도척도는 하위요소인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로 구성되며 생활만족도는 이들 세요소를 모두 포함한 전체 문항의 평균으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값이 0.920이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10개 문항<sup>2)</sup>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값이 0.779이다.

- 
- 1) 나는 평생을 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 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 이었다. 나는 내 동갑내기들보다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내린 편이다. 나는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루어 놓은게 별로 없다. 나의 지난 평생은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 요즈음 나는 살 맛이 난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게 느껴진다. 요즈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매일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요즈음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고 지루하다. 요즈음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요즈음 화나는 일만 점점 많아진다.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앞으로 내가 할 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 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 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 3) 개인체계요인

성별은 남성(1), 여성(2)으로 구성하였고, 연령은 만연령을 의미하며 직접 연령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직업은 직업유무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다(1), 없다(2)로 구성하였다.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의미하며, 측정하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함을 의미한다. 소득수준은 노인가정의 총 월소득을 의미하고, 교육수준은 노인의 학력을 의미하며 무학에서 대졸이상까지 5단계로 나누어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이상(5)으로 구성하였다. 자택소유여부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주형태를 의미하며 자가(1)와 그 외(전세, 월세, 기타)(0)로 구분하였다.

### 4) 미시체계요인

자녀지지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정보적·물질적 지지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자녀 유무에 대해서 있다(1), 없다(2)로 응답하게 하고, 자녀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박소윤(1999)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5개의 문항<sup>3)</sup>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값이 0.803이다. 회귀분석에서는 자녀가 없을 경우 0값을 주었다.

배우자지지는 노인에 대한 배우자의 정서적·정보적·물질적 지지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배우자 유무에 대해서 있다(1), 없다(2)로 응답하게 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박소윤(1999)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6개의 문항<sup>4)</sup>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값이 0.807이다. 회귀분석에서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0값을 주었다.

친구·이웃지지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의 정서적·정보적·물질적 지지를 의미하

- 
- 3) 나의 자녀는 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들어준다. 나의 자녀는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의 집안일을 도와준다. 나의 자녀는 내가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 동행 등을 도와준다. 나는 나의 자녀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들어준다. 나는 나의 자녀가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을 도와준다.
  - 4) 나의 배우자는 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들어준다. 나의 배우자는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의 집안일을 도와준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을 도와준다. 나는 나의 배우자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들어준다. 나는 나의 배우자의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 집안일을 도와준다. 나는 나의 배우자가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을 도와준다.

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친구·이웃 유무에 대해서 있다(1), 없다(2)로 응답하게 하고, 친구·이웃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박소윤(1999)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6개의 문항<sup>5)</sup>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이웃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값이 0.851이다. 회귀분석에서는 친구나 이웃이 없을 경우 0값을 주었다.

#### 5) 중간체계요인

여가활동여부의 경우 여가활동을 건강스포츠활동(체조, 댄스, 등산, 조깅, 수영, 산책,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자전거), 오락사교활동(바둑, 장기, 화투놀이, 윗놀이, 노인정, 노인복지회관참여, 친구들과의 대화), 취미교양활동(서예, 종이접기, 노래, 그리기, 독서, 장기, 동창회, 친목회, 산악회, 여행), 학습활동(어학, 컴퓨터교육, 고전무용이나 민요같은 전통교육), 관람감상활동(박물관, 공원, 동/식물원관람이나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비디오 등의 감상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에 참여여부를 안하고 있다(0), 월1~2회(1), 월3~4회(2), 주1~2회(3), 주3~4회(4), 매일(5)로 측정한 후, 모든 여가활동 참여정도 값을 합하여 0일 경우에는 0값을, 1이상인 경우에는 1값을 주어 여가활동참여여부만을 구분하였다.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기독교인 여부(기독교인이면 1, 아니면 0), 천주교인 여부(천주교인이면 1, 아니면 0), 불교인 여부(불교인이면 1, 아니면 0)으로 측정하였다. 봉사활동의 경우 현재 지역사회나 관련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1, 안하고 있으면 2값을 주어 측정하였다.

#### 6) 거시체계요인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받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받고 있으면 1, 안 받고 있으면 2값을 주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여부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용하고 있으면 1,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2값을 주었다. 노인돌봄서비스이용여부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현

---

5) 나의 친구나 이웃은 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들어준다. 나의 친구나 이웃은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의 집안일을 도와준다. 나의 친구나 이웃은 내가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을 도와준다. 나는 나의 친구나 이웃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들어준다. 나는 나의 친구나 이웃의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의 집안일을 도와준다. 나는 나의 친구나 이웃이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을 도와준다.

재 이용하고 있으면 1,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2값을 주었다.

### 3. 표집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 및 경기도에 사는 노인이다. 표본을 뽑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2곳, 재가복지센터 3곳, 경로당 1곳을 이용하는 노인 190명과 집에 계시는 노인 60명을 합하여 총 250명을 임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50부 중 227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내용이 부실기재 되었거나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11부를 제외한 총 21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ver19.0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으며, 변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평균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인체계요인, 미시체계요인, 중간체계요인, 거시체계요인이 생활만족도(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개인체계요인 대한 기술분석

개인체계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여자가 68.1%, 남자가 31.9%로 여성이 남성의 두배 이상이었다. 직업유무에서는 직업이 없다가 79.6%, 있다가 20.4%로 직업이 없는 노인이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3배 이상이 많았다. 교육수준에서는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이 각각 25.5%, 24.1%로 많았으며, 중졸, 고졸, 대졸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여부에서는 자가 49.1%였고, 전세나 월세 등 비자가 50.9%로 각각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상태의 경우 1점(전혀 건강하지 않다)부터 5점(매우 건강하다)까지의 5점 척도에서 평균 2.69로 보통보다 조금 낮은 건강상태를 보였다. 월 평균 소득수준은 138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217만원으로 월소득에 있어서 편차가 매우 컸다. 자이존중감의 경우 1점(자이존중감 매우 낮음)에서 5점(자이존중감 매우 높음) 척도에서 평균 3.32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자이존중감을 보였다.

표 1. 개인체계요인에 대한 분석

비연속변수			
변수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69	31.9
	여자	147	68.1
직업유무	있다	44	20.4
	없다	172	79.6
교육수준	무학	55	25.5
	초졸	52	24.1
	중졸	32	14.8
	고졸	41	19.0
	대졸이상	36	16.7
주택소유여부	자가	106	49.1
	비자가	110	50.9
연속변수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건강상태	216	2.69	1.24
소득수준	216	138.15	217.20
자이존중감	216	3.32	0.59

## 2. 미시체계요인에 대한 기술분석

미시체계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가 있는 경우는 76.4%,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44.0%, 친구·이웃이 있는 경우는 73.1%로 자녀와 친구가 있는 노인이 비슷한 비율이었으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녀지지는 6점 척도에서 2.49, 배우자지지는 1.66, 친구·이웃지지는 1.99로 자녀지지수준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지지지수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미시체계요인에 대한 분석

비연속변수			
변수	항목	빈도	백분율
자녀유무	있다	165	76.4
	없다	51	23.6
배우자유무	있다	95	44.0
	없다	121	56.0
친구·이웃유무	있다	158	73.1
	없다	58	26.9
연속변수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자녀지지	216	2.49	1.60
배우자지지	216	1.66	1.90
친구·이웃지지	216	1.99	1.35

참고: 자녀지지, 배우자지지, 친구·이웃지지는 자녀나 배우자, 친구·이웃이 있을 경우 5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받음을 의미함. 자녀나 배우자, 친구·이웃이 없을 경우 0점을 주었음.

### 3. 중간체계요인에 대한 기술분석

중간체계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46.8%,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18.1%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절반정도 이지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의 경우 기독교인인 노인은 28.7%, 천주교인인 노인은 27.3%, 불교인인 18.5%로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인 노인의 비율이 비슷하게 전체 노인의 약 1/4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불교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중간체계요인에 대한 분석

변수	항목	빈도	백분율
여가활동여부	여가활동안함	115	53.2
	여가활동함	101	46.8
봉사활동여부	봉사활동안함	177	81.9
	봉사활동함	39	18.1
기독교활동여부	비기독교인	154	71.3
	기독교인	62	28.7
천주교활동여부	비천주교인	157	72.7
	천주교인	59	27.3
불교활동여부	비불교인	176	81.5
	불교인	40	18.5

#### 4. 거시체계요인에 대한 기술분석

거시체계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59.3%,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35.6%,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29.6%로 기초노령연금수급노인이 가장 많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표 4. 거시체계요인에 대한 분석

변수	항목	빈도	백분율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28	59.3
	기초노령연금비수급자	88	40.7
장기요양보험이용여부	장기요양보험이용자	77	35.6
	장기요양보험비이용자	139	64.4
노인돌봄서비스이용여부	노인돌봄서비스이용자	64	29.6
	노인돌봄서비스비이용자	152	70.4

## 5.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술분석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만족도 평균은 2.99였으며, 과거생활만족도는 2.97, 현재생활만족도는 3.10, 미래생활만족도는 2.88로 현재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과거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순으로 낮아졌다.

표 5. 거시체계요인에 대한 분석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생활만족도	216	2.99	0.67
과거생활만족도	216	2.97	0.76
현재생활만족도	216	3.10	0.78
미래생활만족도	216	2.88	0.86

참고: 생활만족도는 1점(매우 불만족)~5점(매우 만족)으로 5점 척도임.

## 6. 생태체계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생태체계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가 생활만족도,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인 모든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각 독립변수들의 VIF 값이 1에서 3사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종속변수가 생활만족도인 회귀분석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6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체계요인에서는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에서는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에서는 여가활동여부, 봉사활동과 종교활동 중 불교인여부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지지정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안하는 경우보다,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안하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불교인 경우가 불교인이 아닌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 중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지지, 봉사활동여부와 불교인여부, 여가활동여부의 순으로 영향력이 작아졌다.

생활만족도 중에서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구분하여 실행하였다. 종속변수가 과거생활만족도인 회귀분석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체계요인에서는 자이존중감, 미시체계요인에서는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에서는 종교활동 중 천주교인여부였다. 자이존중감이 높을수록 과거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지지정도가 클수록 과거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천주교인인 경우가 천주교인이 아닌 경우보다 과거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 중에서는 자이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지지, 천주교인여부의 순으로 영향력이 작아졌다.

종속변수가 현재생활만족도인 회귀분석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48%로 과거생활만족도의 경우보다 설명력이 높다. 독립변수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체계요인에서는 건강상태, 자택소유여부, 자이존중감, 미시체계요인에서는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에서는 여가활동여부와 종교활동중 불교인여부였다. 건강할수록, 그리고 자이존중감이 높을수록 현재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택을 소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재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자녀지지정도가 클수록 현재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현재생활만족도가 높았고, 불교인인 경우가 불교인이 아닌 경우보다 현재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 중에서는 자이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지지, 건강상태, 자택소유여부, 여가활동여부, 불교인여부 순으로 영향력이 작아졌다.

종속변수가 미래생활만족도인 회귀분석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46%로 현재생활만족도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독립변수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체계요인에서는 자이존중감, 중간체계요인에서는 봉사활동여부와 종교활동중 불교인여부였다. 자이존중감이 높을수록 미래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하지 않고 있는 경우보다 미래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불교인인 경우가 불교인이 아닌 경우보다 미래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 중에서는 자이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봉사활동, 불교인여부 순으로 영향력이 작아졌다.



표 6. 생태체계요인이 생활만족도(과거, 현재, 미래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구분		생활만족도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Beta	t	Beta	t	Beta	t	Beta	t
(Constant)			1.929		0.475		.751		2.782*
개 인 체 계	성별	.004	.059	.065	0.875	.014	.209	-.062	-.887
	연령	.047	.839	.117	1.707	.026	.409	-.018	-.270
	직업유무	-.011	-.208	.042	.634	.049	.794	-.109	-1.725
	건강상태	.110	1.824	.012	.158	.228*	3.328	.039	.560
	소득수준	.011	.195	.031	.440	.012	.183	-.012	-.182
	교육수준	-.024	-.334	.093	1.070	-.108	-1.345	-.039	-.473
	주택소유여부	-.087	-1.338	-.010	-.126	-.172*	-2.315	-.039	-.515
	자이존중감	.364*	5.994	.285*	3.805	.301*	4.359	.328*	4.651
미 시 체 계	자녀지지	.219*	3.774	.271*	3.788	.243*	3.688	.052	.778
	배우자지지	.117	1.592	.136	1.492	.067	.804	.094	1.099
	친구·이웃지지	.105	1.813	.042	.585	.095	1.441	.123	1.828
중 간 체 계	여기활동여부	.124*	2.083	.065	.892	.158*	2.336	.089	1.283
	봉사활동여부	-.133*	-2.511	-.112	-1.717	-.052	-.852	-.167*	-2.705
	기독교인여부	.049	.865	-.034	-.486	.120	1.867	.035	.533
	천주교인여부	-.073	-1.213	-.191*	-2.567	.054	.779	-.052	-.743
	불교인여부	-.132*	-2.455	-.066	-1.001	-.120*	-1.970	-.141*	-2.261
거 시 체 계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060	.896	.082	.991	.056	.733	.018	.227
	장기요양보험 이용여부	.037	.664	-.022	-.320	.050	.797	.060	.930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여부	.031	.584	.003	.042	.030	.504	.042	.690
	adjusted R Square	.600		.392		.482		.461	
F(df)	17.985*		8.300*		19.519*		10.666*		

\* : p<.05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생태체계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생활만족도의 하위구성요소인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들이 다른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99로 보통정도의 점수를 보였으며, 현재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과거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순으로 낮아졌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 봉사활동여부, 불교인여부였다.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들이 달랐는데 과거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천주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건강상태, 주택소유여부,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여부와 불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미래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중간체계요인인 봉사활동여부와 불교인여부였다. 종교활동에서 천주교인여부는 과거생활만족도에, 불교인여부는 현재생활만족도와 미래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자아존중감 외에 생태체계요인들 중 과거나 미래생활만족도보다 현재생활만족도에 더 많은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체계요인으로 조사된 노인복지정책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나 소득수준 처럼 기초노령연금이나 요양보험과 요양보호서비스 등의 노인복지정책 수혜여부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되나,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부표>를 보면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은 기초노령연금과 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앞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는 연구에 대해 갖는 함의는 첫째,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의 하위요

인 구성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만족도를 열정, 의연함, 달성하고자한 목표와 실제 달성한 목표 간의 일치도, 자신에 대한 긍정, 기분과 같은 하위차원요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자이존중감 같은 개인의 심리체계를 독립변수로 다룰 때는 의연함, 목표일치도, 자신에 대한 긍정 같은 하위차원요인이 일부는 생활만족도와 중복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차원을 다루는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와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둘째, 종교활동 같은 변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종교를 구분하여 종교별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노년기 영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는 종교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종교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에는 종교활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각기 다른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참여활동을 개별 종교로 구분하여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이존중감은 선행연구와 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자이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갖는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는 우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이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이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생태체계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이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질병예방프로그램의 확대,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확대, 노인상담을 통한 자이존중감 향상이나,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의 유지가 절실하다.

둘째, 현재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자녀지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의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등급완화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봉사활동여부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조직 체계를 더 촘촘히 짜고 자원봉사문화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거주 노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비확률표집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친구교나 불교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거시복지정책 변수의 경우, 거시복지정책해택여부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지만 횡단연구에서는 소득이 낮거나 건강이 나쁜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이나 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따라서 거시복지정책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관계가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장명숙은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기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동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연구원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이며, 현재 노인복지서비스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mschang0342@hanmail.net)

박경숙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이며, 현재 전달체계, 노인복지서비스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spark@kyonggi.ac.kr)

## 참고문헌

---

- 강현옥, 황혜원(2009).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4, pp.89-110.
- 고양근(1999). 노인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6, pp.136-176.
- 고영준(2008).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와 라이프스타일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pp.61-76.
- 김동배, 박은영, 김성웅(2009). 고령자의 자자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 36(3), pp.471-494.
- 김동배, 손의성(2005). 한국노인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25(4), pp.167-187.
- 김동배, 이희연(2003). 사회복지실천의 생태체계 패러다임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 9, pp.27-58.
- 김수정(2006).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사회적지지 및 실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3, pp.29-50.
- 김애련(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익산.
- 김양순(2003).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부산.
- 김연희(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광주.
- 김영범, 박준식(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한국노년학, 24(1), pp.169-185.
- 김정엽, 권복순(2007). 노인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37, pp.111-130.
- 김종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형모(2004). 사회복지실천에서 생태학적 관점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논총, 9, pp.3-21.

- 나동석, 김영대(2011). 노인의 성생활과 성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 연구, 52, pp.185-204
- 남기민(2006). 자이즌증감을 매개로 한 노인의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30, pp.303-328.
- 문기성(2004).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동작구 거주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
- 민정중(2010).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 및 사례분석.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수원.
- 박소윤(1999). 재가복지 서비스 수혜 노인의 사회적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박순미(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 비교. 노인복지연구, 47, pp.137-160.
- 박현순, 나동석(2008). 취업노인의 사회적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0, pp.147-172.
- 배나래, 박충선(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pp.761-779.
- 보건복지가족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 석말숙(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지역사회거주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연구, 26, pp.237-261.
- 소광섭(2007). 도농복합도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pp.7-30.
- 손덕순(2005).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4), pp.205-217.
- 양옥경, 김정진, 서미경, 김미옥, 김소희(2009). 사회복지실천론. 과주: 나남출판사.
- 오선영(2008).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노인의 가족기능과 외로움. 노인복지연구, 42, pp.267-290.
- 오현숙(2003). 노인의 특성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 이동근(2007). 노인돌봄비바우처서비스 이용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 이선미(1991). 중, 노년기 여가활동 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은주(2005).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이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청주대학교, 청주.
- 이현심, 남희수(2010). 농촌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감, 자이존중감 및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17(4), pp.947-985.
- 이현지, 조계화(2006). 노인의 죽음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6(4), pp.717-731.
- 이혜자, 성명옥, 신윤아(2003).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과 인구학적 관련변인: 심리적복지감과 우울감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2, pp.127-150.
- 윤진(1982). 노인생활만족도 척도 제작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초록, pp.26-30.
- 윤현숙, 원성원(2010). 노인의 영성과 종교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4), pp.1077-1093.
- 장상희(1983).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대상으로 사회조사연구, 2, pp.49-64.
- 전병제(1974). 자아 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pp.109-129.
- 정소연, 김은정(2009). 노인돌봄미바우처서비스 효과성과 영향요인. 가족과 문화, 21(1), pp.117-149.
- 정순돌, 김정원(2010). 은퇴한 배우자를 둔 중고령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49, pp.31-50.
- 조선호(2011). 남성노인의 노후준비도가 노후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서울.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2(49), pp.223-257.
- 최송식, 박현숙(2009). 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0, pp.303-328.
- 최숙(2007). 노인돌봄미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 최외선(2007).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4), pp.755-773.
- 최은희(2008). 노인돌봄서비스 성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공주.
-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집중.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학교, 서울.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결과. [http://kosis.kr/ups/ups\\_01List01.jsp?grp\\_no=1002&pubcode=PJ&type=F](http://kosis.kr/ups/ups_01List01.jsp?grp_no=1002&pubcode=PJ&type=F)에서 2012.04.04에 인출.
- 한정란, 김수현(2004). 농촌 남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6, pp.91-118.
- 홍경숙(2010). 생태체계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교, 대구.
- Baltes, P. B., Baltes, M. M.(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New York: Cambridge of University Press.
- Berg, A. I.(2008). *Life Satisfaction in Late Life: Markers and Predictors of Level and Change Among 80+ Year Old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Gothenburg.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Link, K. E.(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pp.646-653.
- Bronfenbrenner. Urie(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ton, B. R., Galaway, B.(1999) *Social Work Processes*. 6th ed. Pacific Grove : Brooks/Cole Publishing.
- Cumming, E. & Henry, W.E.(1961). *Growin gold: the process of inducing agreement*. New York: Basic Books.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pp.542-575.



- Diener, E.,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pp.653-663.
- Homans G.(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 Jan, M., Masood, T.(2008). A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among Women. *Stud. Home Comm. Sci.*, 2(1), pp.33-42.
- Lemon, B. W., Bengston, V. L., Peterson, J. A.(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 pp.511-523.
- Neugarten, Bernice L., Havighurst, Robert J., Tobin, Sheldon S.(1996).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in *The Meaning of Age: Selected Papers of Bernice L. Neugarten*. edited by Dail A. Neugarte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enberg, Morris(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Shanas(1979). Social myth as hypothesis: The case of the family relations of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9(1), pp.3-9.
- Zastrow, C., Kirst-Ashman, K. K.(2010).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5th ed. Singapore : Thomson learning Asia.

부표. 변수간 상관계수

구분	연령	직업 유무	건강 상태	소득 수준	학력	자가 지존감	자녀 지존감	배우자 지지	친구 지지	여가 활동	봉사 활동	기독교	친주교	불교	노령 연금	요양 보험	돌보미	생활 만족도	
성별	.230*	.418*	-.360*	-.372*	-.502*	-.128	-.201*	-.541*	-.105	-.273*	.220*	.127	-.070	.045	-.361*	-.282*	-.205*	-.252*	
연령	1	.355*	-.244*	-.275*	-.489*	-.285*	-.262*	-.462*	-.446*	-.401*	.304*	.076	-.135	.006	-.369*	-.324*	-.136*	-.317*	
직업유무		1	-.362*	-.395*	-.400*	-.262*	-.232*	-.419*	-.242*	-.425*	.330*	.041	-.025	-.055	-.329*	-.304*	-.227*	-.347*	
건강상태			1	.360*	.412*	.296*	.353*	.424*	.321*	.450*	-.315*	-.178*	.207*	.054	.326*	.515*	.360*	.509*	
소득수준				1	.527*	.453*	.317*	.450*	.236*	.342*	-.363*	-.162*	.226*	-.036	.484*	.279*	.283*	.425*	
학력					1	.490*	.380*	.635*	.396*	.510*	-.409*	-.085	.314*	-.033	.478*	.427*	.293*	.465*	
자가						1	.422*	.593*	.318*	.305*	-.261*	-.152*	.188*	.033	.656*	.286*	.333*	.401*	
자존감							1	.351*	.426*	.314*	-.283*	-.068	.077	.099	.484*	.294*	.174*	.638*	
자녀지지								1	.483*	.297*	-.159*	-.104	.139*	.010	.449*	.307*	.362*	.542*	
배우자지지									1	.424*	-.313*	-.068	.126	.070	.609*	.307*	.382*	.496*	
친구지지										1	-.320*	-.050	.126	.076	.329*	.307*	.137*	.501*	
여가활동											1	-.453*	-.041	-.088	.356*	.426*	.263*	.499*	
봉사활동												1	-.307*	.069	-.223*	-.249*	-.120	-.402*	
기독교													1	-.389*	-.089	-.105	-.149*	.027	
친주교														1	-.292*	.196*	.056	.121	
불교															1	-.007	-.043	.101	-.085
노령연금																1	.302*	.394*	.478*
요양보험																	1	.364*	.392*
돌보미																		1	.296*
생활 만족도																			1

#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for the Aged:

From the Ecosystem Perspective

**Chang, Myung Sook**  
(Kyonggi University)

**Park, Kyung Sook**  
(Kyonggi University)

---

This study aims to find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from ecosystemic perspective, analyzing how personal, micro, meso, and macro systems affected past, current and future life satisfaction and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The authors conducted a survey of 216 old people staying at home or using community senior social welfare centers or senior center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2.99, a little lower than the middle score of three out of five point Likert scale. The current life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and the future life satisfaction was the lowest.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overall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among the personal system variables, children's support among the micro system variables, leisure activity, volunteer activity and being a buddhist among the meso system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past, current and future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The factors affecting the past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children's support and being a catholic. The factors affecting current life satisfaction was subjective health, ownership of the house, self-esteem, children's support, leisure activity and being a buddhist. The factors affecting future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volunteer activity and being a buddhis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that elderly Koreans need, in addition to support from their children, policy support to enhance self-esteem, strengthen health, promote stability for housing conditions, and encourage leisure volunteer activities.

---

**Keywords:** Life Satisfaction, the Aged, Ecosystem Perspective